

2013 타마 미술대학 대학원 미술전공 박사과정 졸업
2010 타마 미술대학 대학원 회화전공 판화연구 석사과정 졸업
200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 개인전 |

2025-26 김서울 초대전 〈영O의 정원〉,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전남 영암
2025 IBK아트스테이션 vol.1 – 김서울 〈공존-낙원풍경〉, IBK기업은행본점 로비, 서울
〈초록그림자〉 씨엘아트갤러리, 서울
2024 〈Mon paradis artificiel〉아트팩토리, 파주
2024 〈김서울展〉갤러리Q, 동경, 일본
2023 〈홀로상자일기〉MHK gallery, 서울
〈Parade all together〉오쿠보 분교 스타트업 뮤지엄, 아시카가시, 일본
2022 〈2022AXIS Solo exhibition 김서울-홀로상자일기〉021갤러리 상동, 대구
〈유리상자 아트스타II-김서울〉봉산문화회관, 대구
2021 〈김서울展〉시로타화랑, 동경, 일본
〈Seoul Kim : Hand – colored Etchings〉데이비스 갤러리, 시애틀, 워싱턴
2020 〈올해의 청년작가전〉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7 〈현대인의 일상생활〉뮤지엄 산 기획 신진판화작가선발전, 뮤지엄산, 원주
그 외 다수

| 그룹전 및 아트페어 |

2026 〈불의씨앗:재난 이후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시안미술관, 영천
한불수교140주년기념 〈꽃이 피고, 바람이 분다〉인당뮤지엄, 대구
SSAC20주년기념 〈시지프스의 돌멩이〉우손갤러리, 대구
2025 경상북도 예술거점지원사업 〈파초우 2부〉미술중점공간 보물섬, 경산
〈꽃:찬란한 찰나〉포스코미술관, 서울
〈이곳은 꽃들이 있는 세상이다〉아미미술관, 당진
〈예술통신사:시대를 진단하는 예술담론 럭키비키〉시안미술관, 영천
2024 〈Matrixhood〉갤러리 CNK, 대구
〈5점을 잇는 선〉아트팩토리, 파주
김서울x최수양 2인전 〈Neo vision〉씨엘아트갤러리, 서울
〈드로잉페어링:감각의 연결〉소마미술관, 서울
2022-23 판화지원 프로젝트 입상 작가전 〈일상-Layer〉뮤지엄산, 원주
2022 북구문화재단 기획 〈네오스킨〉여울아트센터, 대구
2022 와동분교 기획전 〈예술가의 작업실로 초대합니다〉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 장, 흥천
2022 대구문화재단 명작산실 지원전시〈정레브리핑 14시,27일〉예술발전소, 대구
2021-22 〈맛있는 미술〉아미미술관, 당진
2020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석파정 서울미술관, 서울
그 외 다수

| 수상 및 레지던시 |

2023 아세안문화재단 국제 레지던시, 치앙마이, 태국
2021 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입주작가, 대구
2021 노보시비스크 국제 현대 그래픽아트 트리엔날 전통판화부문 특별상 수상, 러시아
2019,17 10회, 11회 Trois-Rivières국제현대판화비엔날레 Duguay Prize (관객상), 캐나다
2012 제78회 일본 쇼요우카이 공모전 판화부분 대상, 동경, 일본
제2회 방콕 국제 판화&드로잉 트리엔날레, 매입상, 방콕, 태국
2008 제7회 고치국제판화트리엔날레 고치현립미술관상, 고치, 일본
그 외 다수

| 소장처 |

He art museum(광둥성, 중국),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RISD)뮤지엄(로드아일랜드, 미국), 시애틀시청(시애틀, 미국), 고치현립미술관(고치시, 일본), 오페라시티 문화재단(동경, 일본), 한국미술은행, 뮤지엄산(원주),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 인당미술관(대구)

| 전시서문 |

맥화랑 기획전: 김서울, 김효은, 박지혜, 임승현 단체전
《자라남에 기대어 Leaning on Becoming》

김정원 (맥화랑 큐레이터), 2026

‘자라남’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는 과정적 사건이다. 그것은 고정된 형상으로 수렴되기 이전의 상태, 즉 아직-되어가는 중에 머무는 존재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라남은 완결된 실체라기보다, 차이와 반복 속에서 미세하게 변주되며 지속되는 생성의 운동에 가깝다.

그렇다면 ‘기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상적으로 기대는 행위인 안정된 기반을 전제하지만, 여기서의 기대어 있음은 오히려 그러한 기반을 유예한다. 이 전시는 완결된 구조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미끄러지는 상태—곧 ‘자라남’이라는 과정 자체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태도를 사유한다. 이는 존재를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실체로 보지 않고, 환경과 타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관계적 장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자라남은 단일한 방향으로 진전되는 선형적 발전이 아니라, 얹히고 스며들며 확장되는 다층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라남은 더 이상 내부의 잠재력이 외부로 발현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외부와의 접촉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조정되는, 열려 있는 생성의 장이다. 마치 선(line)이 고정된 형태를 따르기보다 이동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그려나가듯, 자라남 또한 사전에 주어진 형식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때그때의 길을 만들어낸다. 이는 세계를 완성된 객체들의 집합이 아닌, 서로 얹히며 진행 중인 흐름들의 장으로 이해하려는 시선이다.

전시에 참여한 네 작가의 작업은 이러한 ‘자라남’의 서로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투명한 아크릴판 위에 식물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작업은 생장이 단일한 구조가 아닌, 시간과 시선이 교차하는 층위적 사건임을 보여주며(김서울), 판화적 형식과 노스텔지어적 감각을 통해 구축된 풍경은 자라남이 축적과 차이의 리듬 속에서 감각화되는 방식을 제시한다(김효은). 또한 순례적 서사를 품은 화화는 돌봄과 관계적 실천 속에서 생장의 서정성과 존재의 윤리적 개입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며(임승현), 유아와 동물의 조응한 교감, 수놓임 옷감의 물성은 자라남이 보호와 감응, 관계의 경험 속에서 천천히 형성되는 과정임을 드러내며, 돌봄의 시간이 스며든 온기의 감각을 서정적으로 구체화한다(박지혜).

이처럼 서로 다른 형식과 리듬을 지닌 작업들은 ‘자라남’이라는 공통의 상태를 매개로 느슨하게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라남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어떤 감각으로 경험되는가이다. 자라남은 더 이상 자연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감각과 기억, 물질과 시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가 교차하는 장으로 확장된다.

《자라남에 기대어》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기보다, 아직 형성 중인 상태에 자신을 기대어보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것은 완결을 지향하기보다, 진행 중인 과정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생성되는 미세한 차이와 관계의 밀도를 감각하는 태도에 가깝다. 어쩌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고정된 토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이어지는 흐름 위에 기대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전시는 그 불안정하면서도 유연한 상태 속에서, 자라남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통과하며 세계와 다시 연결시키는지를 조용히 드러내고자 한다.

“Becoming” is not a fixed result, but an ongoing process of renewal and transformation. Before settling into a stable form, it remains in a state of continual formation — shaped through time, relationships, and encounters with the surrounding world. In this exhibition, leaning does not imply reliance on something solid or complete; rather, it suggests positioning oneself within the unstable yet generative flow of becoming itself. Growth here is understood not as linear progress, but as an open and relational movement that unfolds through repetition, difference, and connection.

The four participating artists each reveal different dimensions of this becoming. Through layered botanical images on transparent acrylic panels, nostalgic landscapes built through printmaking, paintings infused with pilgrimage-like narratives, and tender scenes of children and animals embroidered with thread, the exhibition explores growth as something shaped slowly through care, memory, labor, and coexistence. Rather than presenting fixed meanings or completed forms, Leaning on Becoming invites viewers to dwell within processes still in formation — to sense how we continuously become through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with time, and with the world around us.

202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박사과정
2011-17 독일 라이프치히 미술대학교, 북아트·그래픽 디자인학과
일러스트레이션 전공(by Prof. Thomas Matthaeus Müller),
Diplom 졸업
2004-08 이화여자대학교, 회화·판화 전공, 서울, 학사 졸업

| 개인전 |

2025 Bird Breeze, Gallery Gaenge, Leipzig, 독일
2023 여전히, nach wie vor, 제이작업실, 부산
2022 Frau Blume, 청사포 갤러리, 부산
2021 Books © 할로 프라우킴, Gallery H, 부산
Album, kz art space gallery, 부산
2019 노는 게 제일 좋아, 갤러리 아티튜드, 부산
2018 Gewinnen ist besser - 이기는 것이 좋아, 갤러리도스 신관, 신관개관전, 서울

| 주요 그룹전 및 프로젝트 |

2024 맥화랑기획vol.2 〈감각과 시선〉 김효은, 손세임, 정연경, 최례 (맥화랑, 부산)
2023 언리미티드 에디션 (9-12, 14-15) 서울아트북페어 (2017-20, 2022-23) (서울)
까망돌 도서관, 오픈월 (동작문화재단, 서울)
행복한 그림전 (맥화랑, 부산)
봄을 봄 (kz art space gallery, 부산)
present is present (B-tree gallery, 서울)
2022 행복한 그림전 (맥화랑, 부산)
블루 아워: BLUE HOUR (갤러리 아트숲, 부산)
2021 작가의 방 -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fyi, 제주도, 서울)
pieceisland (시공사 협업)
2020 Fantasia 3인전 (Gallery H, 부산)
2019 빈공간 X 상자 (서울드로잉클럽, 빈space, 청주)
love kids & love family (studio anabai, 서울)
제7회 우주 산골영화제 (포스터 제작, 우주)
2018 Young Artist Festival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Grassi Messe (그라시 박물관, 라이프치히, 독일)
휴식 (아난티코브 이터널저니, 부산)
2015 Tałpi (Ortloff, 라이프치히, 독일)
Design & Narrative (KSDC, Prefectural University of Arts, 오키나와, 일본)
2014 도쿄 아트북페어 (도쿄, 일본)
아시아프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3 Prints, made in Leipzig (MKE, 부다페스트, 헝가리)
We all are precious (DMC Gallery, 서울)
그 외 다수

| 수상 및 활동 |

2018 디자인 박람회 그라시메세(Grassi Messe) 참가 한국디자인 지원사업 선정,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2017 런던 국제 크레아티브 공모전, 쇼트리스트
2017 어도비 글로벌 디자인공모전, 세미파이널리스트 - 일러스트레이션
2017 3X3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쇼, No.14, Honorable Mention 수상
2008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in ECC, Ewha Prize 수상, 신글채널부문

| 작가노트 |

현실감이 소거된 완벽한 평화로움과 마주하는 때가 있다. 어떤 찰나가 정적 속에 놓이거나, 평범한 일상이 낯설고도 생경하게 다가오는 ‘자메뷰(jamais vu)’의 순간이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 속에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과거와 현재가 혼재할 때, 그 절묘한 찰나를 붙잡기 위해 애쓴다. 과연 그곳은 실재하는 곳이었을까. 하지만 늘 그렇듯 다시 그 자리에 서더라도 그때의 공기와 감각은 이미 ‘지도에 없는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은 그 시간에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색을 쌓아 올린다. 잎을 겹쳐내며 자라나는 나무처럼 반복되는 빛줄은 화면 위에서 견고한 밀도를 형성하고 그 찰나를 되살린다. 초록의 변주로 가득한 화면 위, 빛의 조각들은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영원히 머물게 한다. 아득하고 불투명한 과슈의 색감은 실재와 환상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드러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 속에서 사라진 풍경을 경험하게 한다.

| 전시서문 |

맥화랑 기획전: 김서울, 김효은, 박지혜, 임승현 단체전
《자라남에 기대어 Leaning on Becoming》

김정원 (맥화랑 큐레이터), 2026

‘자라남’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는 과정적 사건이다. 그것은 고정된 형상으로 수렴되기 이전의 상태, 즉 아직-되어가는 중에 머무는 존재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라남은 완결된 실체라기보다, 차이와 반복 속에서 미세하게 변주되며 지속되는 생성의 운동에 가깝다.

그렇다면 ‘기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상적으로 기대는 행위는 안정된 기반을 전제하지만, 여기서의 기대어 있음은 오히려 그러한 기반을 유예한다. 이 전시는 완결된 구조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미끄러지는 상태—곧 ‘자라남’이라는 과정 자체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태도를 사유한다. 이는 존재를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실체로 보지 않고, 환경과 타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관계적 장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자라남은 단일한 방향으로 진전되는 선형적 발전이 아니라, 얹히고 스며들며 확장되는 다층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라남은 더 이상 내부의 잠재력이 외부로 발현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외부와의 접촉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조정되는, 열려 있는 생성의 장이다. 마치 선(line)이 고정된 형태를 따르기보다 이동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그려나가듯, 자라남 또한 사전에 주어진 형식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때그때의 길을 만들어낸다. 이는 세계를 완성된 객체들의 집합이 아닌, 서로 얹히며 진행 중인 흐름들의 장으로 이해하려는 시선이다.

전시에 참여한 네 작가의 작업은 이러한 ‘자라남’의 서로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투명한 아크릴판 위에 식물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작업은 생장이 단일한 구조가 아닌, 시간과 시선이 교차하는 층위적 사건임을 보여주며(김서울), 판화적 형식과 노스텔지어적 감각을 통해 구축된 풍경은 자라남이 축적과 차이의 리듬 속에서 감각화되는 방식을 제시한다(김효은). 또한 순례적 서사를 품은 화화는 돌봄과 관계적 실천 속에서 생장의 서정성과 존재의 윤리적 개입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며(임승현), 유아와 동물의 조용한 교감, 수놓인 옷감의 물성은 자라남이 보호와 감응, 관계의 경험 속에서 천천히 형성되는 과정임을 드러내며, 돌봄의 시간이 스며든 온기의 감각을 서정적으로 구체화한다(박지혜).

이처럼 서로 다른 형식과 리듬을 지닌 작업들은 ‘자라남’이라는 공통의 상태를 매개로 느슨하게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라남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어떤 감각으로 경험되는가이다. 자라남은 더 이상 자연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감각과 기억, 물질과 시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가 교차하는 장으로 확장된다.

《자라남에 기대어》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기보다, 아직 형성 중인 상태에 자신을 기대어보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것은 완결을 지향하기보다, 진행 중인 과정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생성되는 미세한 차이와 관계의 밀도를 감각하는 태도에 가깝다. 어쩌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고정된 토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이어지는 흐름 위에 기대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전시는 그 불안정하면서도 유연한 상태 속에서, 자라남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통과하며 세계와 다시 연결시키는지를 조용히 드러내고자 한다.

“Becoming” is not a fixed result, but an ongoing process of renewal and transformation. Before settling into a stable form, it remains in a state of continual formation — shaped through time, relationships, and encounters with the surrounding world. In this exhibition, leaning does not imply reliance on something solid or complete; rather, it suggests positioning oneself within the unstable yet generative flow of becoming itself. Growth here is understood not as linear progress, but as an open and relational movement that unfolds through repetition, difference, and connection.

The four participating artists each reveal different dimensions of this becoming. Through layered botanical images on transparent acrylic panels, nostalgic landscapes built through printmaking, paintings infused with pilgrimage-like narratives, and tender scenes of children and animals embroidered with thread, the exhibition explores growth as something shaped slowly through care, memory, labor, and coexistence. Rather than presenting fixed meanings or completed forms, Leaning on Becoming invites viewers to dwell within processes still in formation — to sense how we continuously become through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with time, and with the world around us.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졸업
2026 화성시 동탄레지던시 입주

| 개인전 |

2022 너를 위한 전시, 디아트플랜트 요갤러리, 서울
제제, 갤러리 어나더레벨, 서울
2021 Hug, 갤러리다온, 서울
세상의 모든 털뭉치를 위해, 갤러리미루, 서울
2020 품, 레드엘갤러리, 대전
2019 또 하나의 가족_AK갤러리, 수원

| 주요 그룹전 |

2025 She, at home, 2448 art space
신중한 턱시도와 다정한 레브라토의 생활계획표, 인사갤러리
10-200,행복한 그림전, 맥화랑
BREEZE, 갤러리나우
2024 성탄선물전, 2448art space
LOVE, 수지미술관(특별기획전)
2023 MY MESSAGES, 갤러리아트리에
인생극장, 신세계갤러리 대구
2020 See The Unseen, 충무로갤러리
청담동 동물원전, 갤러리두
2019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 제이갤러리
2018 아트경기
2017 반짝,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ASYAAF, 동대문DDP
SUNDAY&FRIENDS_artmora,NJ
2016 반려:함께하는 삶, 신세계갤러리 부산
LOVE&RESPECT, ak gallery
미래를 보다, 갤러리 엘르
2015 GIAF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 세종갤러리
ASYAAF, 문화역서울284(POP PRIZE 우승)
후소회청년작가전_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14 신진작가 발굴전, 수원미술전시장
2012 ASYAAF, 문화역서울 284

| 작가노트 |

어릴 적부터 늘 동물들과 함께였습니다. 작은 생명이었지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로부터 생명의 소중함과 배려를 배웠습니다. 현재 작업 속에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이유도, 누군가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동물에게서 받은 고마운 마음을 되돌려주듯 제 작업은 어떤 시리츠로 변화되더라도 늘 나보다 '무언가를 위한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림 속 '빛'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빛은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순간이자, 평화로워 보이는 장면 뒤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며 빛을 쫓기도 하고 동물 자체가 빛이 되기도 합니다.

저의 작업은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나는 순간들, 그 시간을 품고 지켜내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의 재료와 기법은 린넨 천 위에 먹과 채색과 자수입니다. 물감이 제멋대로 번져나가는 천에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다듬어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의 마음을 닮아 선택하게 되었고 천이라는 재료 자체가 따뜻한 느낌을 주어 작업의 주제와 가장 알맞다는 생각에 재료로서 기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면작업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전달하기 위해 직접 수를 놓아 작업하고 있습니다.

| 전시서문 |

맥화랑 기획전: 김서울, 김효은, 박지혜, 임승현 단체전
《자라남에 기대어 Leaning on Becoming》

김정원 (맥화랑 큐레이터), 2026

'자라남'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는 과정적 사건이다. 그것은 고정된 형상으로 수렴되기 이전의 상태, 즉 아직-되어가는 중에 머무는 존재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라남은 완결된 실체라기보다, 차이와 반복 속에서 미세하게 변주되며 지속되는 생성의 운동에 가깝다.

그렇다면 '기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상적으로 기대는 행위는 안정된 기반을 전제하지만, 여기서의 기대어 있음은 오히려 그러한 기반을 유예한다. 이 전시는 완결된 구조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미끄러지는 상태—곧 '자라남'이라는 과정 자체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태도를 사유한다. 이는 존재를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실체로 보지 않고, 환경과 타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관계적 장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자라남은 단일한 방향으로 진전되는 선형적 발전이 아니라, 얹히고 스며들며 확장되는 다층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라남은 더 이상 내부의 잠재력이 외부로 발현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외부와의 접촉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조정되는, 열려 있는 생성의 장이다. 마치 선(line)이 고정된 형태를 따르기보다 이동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그려나가듯, 자라남 또한 사전에 주어진 형식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때그때의 길을 만들어낸다. 이는 세계를 완성된 객체들의 집합이 아닌, 서로 얹히며 진행 중인 흐름들의 장으로 이해하려는 시선이다.

전시에 참여한 네 작가의 작업은 이러한 '자라남'의 서로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투명한 아크릴판 위에 식물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작업은 생장이 단일한 구조가 아닌, 시간과 시선이 교차하는 층위적 사건임을 보여주며(김서울), 판화적 형식과 노스텔지어적 감각을 통해 구축된 풍경은 자라남이 축적과 차이의 리듬 속에서 감각화되는 방식을 제시한다(김효은). 또한 순례적 서사를 품은 화화는 돌봄과 관계적 실천 속에서 생장의 서정성과 존재의 윤리적 개입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며(임승현), 유아와 동물의 조응한 교감, 수놓인 옷감의 물성은 자라남이 보호와 감응, 관계의 경험 속에서 천천히 형성되는 과정임을 드러내며, 돌봄의 시간이 스며든 온기의 감각을 서정적으로 구체화한다(박지혜).

이처럼 서로 다른 형식과 리듬을 지닌 작업들은 '자라남'이라는 공통의 상태를 매개로 느슨하게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라남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어떤 감각으로 경험되는가이다. 자라남은 더 이상 자연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감각과 기억, 물질과 시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가 교차하는 장으로 확장된다.

《자라남에 기대어》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기보다, 아직 형성 중인 상태에 자신을 기대어보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것은 완결을 지향하기보다, 진행 중인 과정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생성되는 미세한 차이와 관계의 밀도를 감각하는 태도에 가깝다. 어쩌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고정된 토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이어지는 흐름 위에 기대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전시는 그 불안정하면서도 유연한 상태 속에서, 자라남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통과하며 세계와 다시 연결시키는지를 조용히 드러내고자 한다.

"Becoming" is not a fixed result, but an ongoing process of renewal and transformation. Before settling into a stable form, it remains in a state of continual formation — shaped through time, relationships, and encounters with the surrounding world. In this exhibition, leaning does not imply reliance on something solid or complete; rather, it suggests positioning oneself within the unstable yet generative flow of becoming itself. Growth here is understood not as linear progress, but as an open and relational movement that unfolds through repetition, difference, and connection.

The four participating artists each reveal different dimensions of this becoming. Through layered botanical images on transparent acrylic panels, nostalgic landscapes built through printmaking, paintings infused with pilgrimage-like narratives, and tender scenes of children and animals embroidered with thread, the exhibition explores growth as something shaped slowly through care, memory, labor, and coexistence. Rather than presenting fixed meanings or completed forms, Leaning on Becoming invites viewers to dwell within processes still in formation — to sense how we continuously become through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with time, and with the world around us.

1998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2010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2026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객원교수

| 주요 개인전 |

2026 Passage, 갤러리 HUE
2025 가꾸주는 생활, 2448 ART SPACE
Pilgrim, 갤러리 HUE
2024 Pilgrim, ARTE K
My Private garden, GS타워 더스트릿 갤러리
2023 My Private garden, 소허당 갤러리
My Private garden, Arte K
2022 Old & Wise, 갤러리 숲
2021 Catch the rainbow, 씨포먼트 갤러리
2020 가꾸주는 생활, 씨포먼트 갤러리
2019 Daydreamer, LJA 이정아 갤러리
Daydreamer, 유나이티드 갤러리
2018 Extra, 씨포먼트 갤러리
Spaceman, 소허당 갤러리
2017 도시소경, 8street 갤러리
2016 수줍은 아저씨의 꽃 넥타이, 소허당 갤러리
그 외 다수

| 주요 그룹전 및 아트페어 |

2026 화랑미술제, COEX, 서울
Art Tainan, Silks place, Taiwan
처음에 가까운 것들, Lucy vagency, 서울
2025 Collectibles: 공간미학, 신세계 갤러리 센텀, 부산
순수한 풍경-최우, 임승현 2인전, 병원안 갤러리, 인천
KIAF Seoul, COEX, 서울
조금 먼, 아주 가까운-임승현, 이예림 2인전, 열정갤러리, 서울
스며든 잔잔한 위로, EN갤러리, 서울
10-200, 행복한 그림전, 맥화랑, 부산
화랑미술제 IN SUWON, 수원컨벤션센터, 수원
우리 함께 그린 행복, JOY갤러리, 부산
Present tense,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2024 안산국제아트페어, 단원미술관, 안산
꿈꾸는 봄-임승현, 서동진 2인전, 조이갤러리, 부산
Four Presents-임승현, 김용일, 윤형선, 백준승 4인전, BLACK STONE, 인천
임승현, 이윤정 2인전, 빛갤러리, 서울
2023 The Present Moment-임승현, 감만지, 최미정 3인전, 갤러리베누스, 하남
수유리 라이브-임승현, 명소라 2인전, 갤러리자작나무, 서울
A Chacun sa toile!, 갤러리 M9, 서울
2022 Sweet memory-임승현, 김용일, 모용수 3인전, 슈퍼리어갤러리, 서울
임승현, 이오성 2인전, 2448Moon Fine Arts, 서울
서울모던아트쇼, S-FACTORY, 서울
Find your piece, 씨포먼트갤러리, 서울
Connected memories,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울산국제아트페어, UECO, 울산
2020 Ordinary days, 씨포먼트갤러리, 서울
to PLAY-J아트갤러리 기획 임승현, 원상호 2인전, J아트갤러리, 천안
임승현, 노반 2인전, DGB갤러리, 대구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Start up, 갤러리 마롱, 서울
2019 Art & Life, 한전아트센터, 서울
색의 온도, 한전아트센터, 서울
2018 유나이티드갤러리 6인기획전-From~,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Seoulism-Globalization of Seoul Contemporary Art, Korea Culture Center, L.A, U.S.A
그 외 다수

| 전시서문 |

맥화랑 기획전: 김서울, 김효은, 박지혜, 임승현 단체전
《자라남에 기대어 Leaning on Becoming》

김정원 (맥화랑 큐레이터), 2026

‘자라남’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는 과정적 사건이다. 그것은 고정된 형상으로 수렴되기 이전의 상태, 즉 아직-되어가는 중에 머무는 존재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라남은 완결된 실체라기보다, 차이와 반복 속에서 미세하게 번주되며 지속되는 생성의 운동에 가깝다.

그렇다면 ‘기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상적으로 기대는 행위는 안정된 기반을 전제하지만, 여기서의 기대어 있음은 오히려 그러한 기반을 유예한다. 이 전시는 완결된 구조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미끄러지는 상태—곧 ‘자라남’이라는 과정 자체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태도를 사유한다. 이는 존재를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실체로 보지 않고, 환경과 타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관계적 장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자라남은 단일한 방향으로 진전되는 선형적 발전이 아니라, 얹히고 스며들며 확장되는 다층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라남은 더 이상 내부의 잠재력이 외부로 발현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외부와의 접촉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조정되는, 열려 있는 생성의 장이다. 마치 선(line)이 고정된 형태를 따르기보다 이동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그려나가듯, 자라남 또한 사전에 주어진 형식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때그때의 길을 만들어낸다. 이는 세계를 완성된 객체들의 집합이 아닌, 서로 얹히며 진행 중인 흐름들의 장으로 이해하려는 시선이다.

전시에 참여한 네 작가의 작업은 이러한 ‘자라남’의 서로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투명한 아크릴판 위에 식물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작업은 생장이 단일한 구조가 아닌, 시간과 시선이 교차하는 층위적 사건임을 보여주며(김서울), 판화적 형식과 노스텔지어적 감각을 통해 구축된 풍경은 자라남이 축적과 차이의 리듬 속에서 감각화되는 방식을 제시한다(김효은). 또한 순례적 서사를 품은 화화는 돌봄과 관계적 실천 속에서 생장의 서정성과 존재의 윤리적 개입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며(임승현), 유아와 동물의 조용한 교감, 수놓인 옷감의 물성은 자라남이 보호와 감응, 관계의 경험 속에서 천천히 형성되는 과정임을 드러내며, 돌봄의 시간이 스며든 온기의 감각을 서정적으로 구체화한다(박지혜).

이처럼 서로 다른 형식과 리듬을 지닌 작업들은 ‘자라남’이라는 공통의 상태를 매개로 느슨하게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라남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어떤 감각으로 경험되는가이다. 자라남은 더 이상 자연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감각과 기억, 물질과 시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가 교차하는 장으로 확장된다.

《자라남에 기대어》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기보다, 아직 형성 중인 상태에 자신을 기대어보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것은 완결을 지향하기보다, 진행 중인 과정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생성되는 미세한 차이와 관계의 밀도를 감각하는 태도에 가깝다. 어쩌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고정된 토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이어지는 흐름 위에 기대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전시는 그 불안정하면서도 유연한 상태 속에서, 자라남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통과하며 세계와 다시 연결시키는지를 조용히 드러내고자 한다.

“Becoming” is not a fixed result, but an ongoing process of renewal and transformation. Before settling into a stable form, it remains in a state of continual formation — shaped through time, relationships, and encounters with the surrounding world. In this exhibition, leaning does not imply reliance on something solid or complete; rather, it suggests positioning oneself within the unstable yet generative flow of becoming itself. Growth here is understood not as linear progress, but as an open and relational movement that unfolds through repetition, difference, and connection.

The four participating artists each reveal different dimensions of this becoming. Through layered botanical images on transparent acrylic panels, nostalgic landscapes built through printmaking, paintings infused with pilgrimlike narratives, and tender scenes of children and animals embroidered with thread, the exhibition explores growth as something shaped slowly through care, memory, labor, and coexistence. Rather than presenting fixed meanings or completed forms, Leaning on Becoming invites viewers to dwell within processes still in formation — to sense how we continuously become through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with time, and with the world around us.